

보화종과 샤큐하치와 허무승

보화종은 선종에서 파생된 불교의 일파로 명상의 한 형태로 샤큐하치(대나무로 만든 통소)를 연주했습니다. 보화선의 실천자에는 허무승('허무의 성직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음)이 있습니다. 허무승은 전통적으로 승려나 탁발승으로 대부분 갈대로 만든 쓰개를 쓰고, 순례를 하며 샤큐하치를 불었습니다.

허무승은 바구니를 뒤집어놓은 듯한 모양의 머리부터 얼굴까지 덮는 쓰개를 쓰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쓰개로 신분을 숨기는 관습은 자아의 부재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부가 검문소를 두고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던 시대에 허무승은 순례승으로서 일본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낭인(주군이 없는 사무라이)이나 보화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자유로운 이동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허무승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화종은 고코쿠지 절의 개산조인 신치 가쿠신(心地覺心, 1207~1298년)에 의해 13세기에 창건되었습니다. 가쿠신은 중국에서 몇 년을 지내며 무문혜개(1183~1260년) 등 선불교의 선사들을 사사하였습니다. 무문은 일본 선불교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정리한 『무문관』(無門關)을 저술한 인물입니다. 가쿠신은 샤큐하치의 악보와 함께 무문의 가르침과 그 밖의 가르침을 일본으로 가져와 보화종을 창설했습니다.

보화종의 인기는 시대와 함께 쇠퇴했고, 허무승은 주로 에도 시대(1603~1867년)의 일본을 연상시키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샤큐하치는 지금도 선의 의식과 명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토의 묘안지 절에서는 보화류의 샤큐하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코쿠지 절에서는 허무승의 샤큐하치 연주 등, 사찰 내 축제와 행사를 통해 가쿠신을 기리고 있습니다.